

투박하고 묵묵한, 책임을 다하는 만형 같은 풍모

옆에서 본 저자 김원일



이청해 | 소설가

1990년 무렵에 선생님을 처음 뵈었다. 내가 KBS문학상을 타게 되어, 심사하셨던 선생님을 그 뒤에 뵈게 된 것이다. 아니다. 그 전에도 먼빛으로 두어 번 뵈는 적이 있다. 문학에 대해 어디선가 대담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선생님의 소설을 일찍이 좋아해서 이십대 때부터 《어둠의 혼》이니 《오늘 부는 바람》이니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니 하는 책들을 끼고 살아온 터였다. 선생님의 소설이 내게 특별히 다가온 날이 선명히 기억난다. 아마도 대학교 2,3학년 때였을 것이다. 나는 국문과에 다니고 있었고, 이해가 안 가는 책들을 골라 읽었고, 그때에도 소설을 쓰고 있었다. 어느 아침이었다. 일요일이었는지 혹은 방학중이었는지 모르겠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소리 때문에 수면의 램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급히 깨어나 머리가 멍한 상태였다. 소리의 진원지는 잠상인쑤므로 하찮은 것이었다. 나는 약간 짜증이 나는 기분으로 책상에 앉았다. 책상에는 <현대문학>이 놓여 있었다. 나는 책을 펼치고 거기에 실린 소설 중 하나를 읽어 내려갔다. 읽는 동안 내 몸은 점점 더 굳어져 나중에는 돌처럼 되었고, 그러면서도 가슴 속이 달달달 떨렸으며, 이마에서는 진땀이 배어났다. 나는 충격으로 꿈쩍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한참 만에 겨우 소설의

첫머리로 돌아가 작가의 이름과 제목을 살폈다. 김원일이란 작가의 <죽어 눈뜨리>라는 단편이었다. 자욱한 안개와 들판, 눈 먼 처녀, 강간당하는 장면이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마조마하게 떠오른다. 아, 이런 게 소설이구나, 이런 게 문학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가슴 저 안으로 스쳐 지나가며, 감수성이 고되고 내가 쓰는 걸멋 든 소설들은 소설이 아니라는 확신이 왔다. 문학의 진정성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한 순간이었다. 인생의 무자비함에 대해서도, 세상일이란 누구 사정 봐줘 가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을 나는 선생님의 소설을 통해서 깨쳤고, 약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글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언제나 그때의 떨림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 선생님을 1990년 가을에 사적으로는 처음 뵈었다. 내가 전화를 드리고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선생님은 얼굴이 희고 젊으셨고, 앞머리에 새치가 보기 좋게 섞여가고 있었고, 체구가 생각보다 컸다. 앞뒤 말없이 선생님은 수상적이었던 내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욕심을 내보라는. 발전된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어투는 빨랐고, 정곡을 찌르는 화법이었다. 나는 막연히 선생님을 과묵하고 책임을 다하는, 만형 같은 면모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

었다. 그동안 선생님의 소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미지였을 것이다. 그 뒤, 십사오 년 동안, 많게는 일 년에 서너 번, 어떤 때는 삼사 년에 한 번 선생님을 뵈면서 느낀 것은, 처음의 내 상상이 오히려 빈약하다는 사실이었다. 선생님은 말이 빠르고, 행동도 번개같이 민첩하시고, 머리 회전도 빠르시다. 기억력 또한 출중하시다.

1982년에 낸 《연》의 서문을 보면 선생님은 소년 시절부터 겁 많은 울보였고, 또래들에 잘 섞이지 못했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어른이 되면 약산을 앞에 닦을 자신이 없었기에 내리막길부터 찾아안개 속의 늪으로 어서 내려가야지 하는 생각이 위안이 되었고, 때문에 빨리 늙고 싶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선생님께서서는 절대로, 전혀, 지금까지도 노인을 느낄 수 없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서너 시경에 일어나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분량의 원고를 쓰시고, 아침 열 시쯤이면 어김없이 일터에 출근해 계시고, 그러고 나서도 오후 내내, 혹은 하루 종일 글을 쓰신다. 동생 되시는 김원우 선생의 말처럼 선생님은 일만 하시는 것 같다. 소설 외에도 미술에 관한 책들이며 산문이며 이런저런 일들까지 종횡무진으로 젊은 사람 네댓 명 분량의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내신다. 선생님이야말로 요즘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아침형 인간'의 전형적인 본보기다. 그러면서도 자리가 마련되면 술도 잘 드신다. 취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구상도 하시고 문체도 생각하시며 소설의 거의 모든 점을 해결하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은 이렇듯 열정적으로, 전혀 자기 연배답지 않다.

나는 선생님을 뵈 때마다 내게는 없는, 타고난 에너지를 느낀다. 소심하다느니 내향적이라느니 패배주의에 익숙했다느니 하는 과거 고백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언제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일들을 즉각즉각 속도감 있게 처리하시고, 조연할 일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행동도 거침이 없으시

다. 그렇듯 찬바람 돌고 투박하고 묵묵한 외연 저 안쪽, 난로 위의 주전자 물이 끓듯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계시다. 선생님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동생들이나 주변이나 후진들은 봄볕 속에 쬐어진 듯 늘 따사롭다. 세간에는 선생님이 여자를 싫어한다는, 결벽증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래서 가까이 가기 무척 저어되었지만, 당신이 연배 들어, 나 또한 나이 들어 만나게 된 때문인지 특별히 그런 느낌이 없었다. 놀랄 정도로 범연하고, 무애스럽고, 덤덤했다. 우리 아래 세대에서는 사라져버린 과묵하고 믿음직스런 우리 고유의 남성상을 나는 선생님께서서 본다.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는 만형 같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있는 거목 같고 또 산 같기도 한. 옛날 여인들은 '친정'이나 '오라버니' 같은 말들에서 선생님의 체취 같은 무엇을 그리워했을 것 같다. 요란하지 않으나 결국은 나를 감싸줄 피붙이 같은 믿음. 장애인들이나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도 이번 책을 통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 같다.

나는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성미가 아니어서 선생님의 그 걸출한 춤을 아직 보지 못했다. 플라밍고인지 캥캥인지, 아니면 로봇춤인지. 멕시코 술집에서 남피프 춤을 추며 즐기던 사람들을 압도했던 그 춤을 말이다. 그러나 얼마 전 '베싸메무초'를 비로소 들을 수 있었다. 무겁게, 자신을 억누르는 힘에 항거하듯, 온 실존이 실려 있는 듯하던 그 노래를.

나는 문학이라는 동네에 들어와서 선생님 같은 분을 직접 뵈 수 있어서 진정 행복하다. 이제 갑년도 지나셨으니 술도 좀 덜 드시고, 걷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오래 오래, 이제까지처럼 묵직한 소설들을 써주시기를, 그래서 그걸 읽게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

이 글을 쓴 이창해는 1991년 <문학사상>에 단편 <하오>로 등단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빛소리> <송어> <플라타너스 꽃>을 썼으며, 장편소설 <초록빛 아침> <아비뇽의 여자들> <체리 블라썸> <오로라의 환상> 등을 냈다.